

##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준현\*\* · 이수천\*\*\*

### 초 록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55개의 그룹홈 231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조사대상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들 중 남녀 집단 간 차이가 나는 요인은 학교 교사의 지지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중 친구의 지지 요인은 남자와 여자 모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그룹홈 가족의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셋째, 통제변인 중 성적은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그룹홈 청소년들에게는 친구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그룹홈 구성원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학습 도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요인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에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으므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그룹홈, 청소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 본 연구는 김형태·조순실(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Data set을 사용하였다. 김형태·조순실(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였다.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wri21c@hanmail.net

\*\*\* 서울기독대학교 박사과정, sam8291@hanmail.net

## I. 서 론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sup>1)</sup>은 9세에서 24세의 자를 말한다(제3조).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변화의 시기로서 인간의 전 생애 중 급격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을 통해 독립된 개체로서의 위치가 형성되며 성격형성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홍성애, 1988). 그 변화의 폭이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발달과정에 따른 적응을 적절하게 이루지 못할 경우, 심리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것이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김수진 외, 2004: 74).

청소년 시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Rosenberg, 1965; Bandura, 1986), 인간이 건 강한 행동을 하게 되는 데 관련이 있다(Well and Marwell, 1976 강석기, 2003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김미성, 2001: 11). 따라서 변화의 폭이 큰 청소년 시기일지라도 자아존중감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영신, 양승남(2005: 154, 159)이 폭력 및 반사회적 행동 양상을 보인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같은 개인 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에경(2003: 352)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주기를 고려할 때

---

1)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정의하길 18세 미만의 자라고 하고 있다(제2조). ‘아동’이라는 말과 ‘청소년’이라는 말을 연령층으로만 볼 때 거의 차이를 둘 수 없다. 연구자들도 자신들의 연구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청소년을 보기로 한다. 다만, 인용상 청소년으로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 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친구, 가족, 교사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환경 요소가 된다. 한편, 그룹홈 청소년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생활환경이 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첫째,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며, 대부분 그룹홈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다루고 있다(김성경, 2003; 김형태·조순실, 2009; 이미혜, 2001; 이용교, 2000; 조성연, 2004). 둘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연구의 경우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각각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로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는 경우(김형태·조순실, 2009)와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는 경우(강기정·정은미, 2003)가 일반적이다.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직접 연결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변화라는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룹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차이가 없다는 경우(Furukawa, Harai and Takahashi, 1999; Turner and Noh, 1988, 정기원, 2006)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 지각이 나타난다는 경우(Ross and Mirowsky, 1989; Zimet, Dahlem, Zimet and Farley, 1988)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한정된 대상만을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지지 제공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부족하다(김애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 대상자의 집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볼 때 보다 더 실제적인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룹홈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살펴본 후, 사회적 지지의 기반 변화라는 중요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충분

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그룹홈과 그룹홈 청소년

그룹홈은 요보호 아동 5에서 7명으로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37). 민간에서 시작한 그룹홈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95년부터 선(先) 가정 후(後) 시설 보호원칙에 따라 정부가 5개의 정부 지원 그룹홈을 시범운영을 한 것이 본격적인 그룹홈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6월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신고 된 그룹홈이 332개소이고,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이 248개소이며, 인원 현황을 보면 남자가 842명, 여자가 744명으로 총 1,586명으로 보고하고 있다(그룹홈협의회, 2008).

‘그룹홈’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정과 같은 환경’이 그룹홈의 핵심이다. 대규모 시설에 비해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왔다(김성경, 2003; 이태수 외, 1997; 장인협·오정수 2002; 조성연, 2004). 김성경(2003: 119)은 그룹홈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는 중 ‘지역 사회 내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들고 있으며, 이용교(2000)는 이런 그룹홈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 중 ‘대안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들고 있다.

그룹홈 청소년은 가출, 부모이혼·별거,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룹홈에 오게 된다. 어떤 경우든 생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그룹홈을 통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접하게 되고, 이는 그들에게 생활

안정과 더불어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선희, 2003: 11). 그룹홈의 분위기나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룹홈 청소년들은 생활교사를 ‘아빠’, ‘엄마’, ‘삼촌’, ‘이모’ 등과 같은 가족관련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이용교(2000)가 말한 대안 가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성연(2004: 382)은 그룹홈에는 일반 가정과 같은 형식의 부모자녀 관계와 형제자매 관계가 있어 이들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룹홈 청소년은 ‘또 하나의 가족’<sup>2)</sup>이라는 새로운 지지 체계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 2.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Weiss(1974)와 Cobb(1976)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개인으로의 일 방향적인 영향으로 간주되어 왔다(장미경, 2004: 3 재인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통하여 받는 모든 긍정적인 지지라 할 수 있다(박유진, 2005: 13-25).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으로 주로 부모, 친구, 학교 등과 같은 전통적 체계를 들 수 있다(최영, 2007: 69).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 관계는 가족 관계와는 또 다른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사회적 행동을 발달하게 된다(장미경, 2004: 10).

김성경(2001)은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교사의 지지가 높을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정서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와 조순실(2009)은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친구의 지지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소이고, 그룹홈 가족의 지지는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소이고, 친구 지지와 그룹홈 가족 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이라는 그룹홈이 있다. 원가정과는 같을 수는 없지만 그룹홈이 ‘가정 같은 환경’을 지향한다는 철학이 담겨진 이름이다.

### 3.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행동 영역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격적 속성으로 환경, 사상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기평가의 상태로(Kim, 1995) 자신이 능력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기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자주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 하며 불행스럽게 느낀다고 한다(Jeong, 1968).

장선철, 송미현(2004: 115)에 따르면 청소년은 외모 만족도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연진, 나유미(2003: 62)에 따르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친구 관계에도 친밀감을 획득하지만 부모와 단절된 청소년은 고독하게 되어 있다. 연문희(1989)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행동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은 주위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크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룹홈 청소년과 관련하여 김형태, 조순실(2009)은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응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정은미(2003)는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총체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눠 사전 사후 분석을 하였는데,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동의 심리 내에서 작동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만, 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 문제나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4.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의 결정 요인으로 이론화되고 있다(Goodwin,

Costa and Adonu,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먼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연희, 박경자(2001)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 가족,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학생이 적게 받는다고 지각한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권순용(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원(200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짐을,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여학생에게 더 높음을,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애경(2003)은 부모 갈등이 심각한 경우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암환자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 연구한 조유진, 김광웅(2002)은 암환자 아동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반 아동은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리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위기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현상임을 볼 수 있다. 다만, 위기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면에서 위기 청소년과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거나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설문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전 그룹홈 청소년이다. 사전에 연락을 하여 그룹홈 대표가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설문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한 총 55개

의 그룹홈을 방문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은 총 231명이었으며 연령대는 11세에서부터 20세였다.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는 없었으며, 총 231부 전부 분석에 사용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하여 그룹홈 연구팀이 조직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고 설문에 나갔다. 설문 전에 연구의 목적을 진실하게 말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였으며, 회수 시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설문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하는 청소년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었다.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였다.

##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SPSS 15.0을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이다. 응답범위는 10에서 40이다. 신뢰도는 원척도에서 Chronbach  $\alpha$  값이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4이다.

##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한다. 사회적 지지 변인은 Dubow와 Ulman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beman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그리고 Lemper와 동료들이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 척도이다(서초 구립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서울대 실천사회복지 연구회 Praxis, 2004: 421).

하위척도는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는 그룹홈 가족의 지지로 대체하였다. 그룹홈 가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룹홈 청소년은 그룹홈 구성원들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룹홈이 하나의 대안 가정이 되기 때문이다. 교사 지지의 경우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지는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응답범위는 8에서 40이다. 그룹홈 가족 지지는 ‘우리 그룹홈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그룹홈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응답범위는 8에서 40이다. 학교 교사 지지는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응답범위는 5에서 25이다. 원 척도의 하위 영역 신뢰도는 모두 Chronbach  $\alpha$  값이 .80 이상이었고,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3)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인 요소들 중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하였다. 성별, 나이, 성적, 그룹홈 거주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여자를 0, 남자를 1로 더미화 하였다. 0에서 1로 올라가는 것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였다. 성적은 그룹홈 청

소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성적으로 상을 5로, 상중을 4로, 중을 3으로, 중하를 2로, 하를 1로 처리하였다. 그룹홈 거주기간은 개월로 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1>과 같다.

<표1> 척도의 신뢰도

변인		신뢰도( $\alpha$ )	
		본 연구	원저
자이존중감(Rosenberg)		.81	.92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91	.91
	그룹홈 가족 지지		
	학교 교사 지지		

## IV. 분석결과

### 1. 그룹홈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표2>는 조사 대상 그룹홈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113명(48.9%), 118명(51.1%)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나이는 평균 14.6세이다. 중위값인 15세가 가장 많은 빈도인 37명(16.1%)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 평균이 중위값 부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11-12세가 50명(21.7%),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가 101명(43.9%),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가 66명(28.7%),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해당하는 19-20세가 13명(5.7%)이다. 19세에서 20세는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8세가 지나면 그룹홈을 떠나 독립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은 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극히 적었으며(9명, 4.0%), 이에 반하여 하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46명, 20.3%). 대부분 중(64명, 28.2%)과 중하(70명, 30.8%)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상 부분 보다는 하 부분으로 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룹홈 거주기간은 최대 162개월, 최소 1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은 43.5개월이다. 1년에서 3년 거주한 청소년이 69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표2>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변인	빈도 (명)	비율 (%)	Min	Max	Mean	SD	
성별	남자	113	48.9				
	여자	118	51.1	-	-	-	
	계	231	100.0				
나이	11세	18	7.8				
	12세	32	13.9				
	13세	32	13.9				
	14세	32	13.9				
	15세	37	16.1				
	16세	27	11.7	11	20	14.6	2.3
	17세	26	11.3				
	18세	13	5.7				
	19세	8	3.5				
	20세	5	2.2				
계	230	100.0					
성적	상	9	4.0				
	상중	38	16.7				
	중	64	28.2				
	중하	70	30.8	-	-	-	-
	하	46	20.3				
	계	227	100.0				
그룹홈 거주기 간 (개월)	1년미만	61	26.4				
	1~3년	69	29.9				
	3~5년	34	14.7				
	5~10년	56	24.2	1	162	43.5	38.8
	10년이상	11	4.8				
계	231	100.0					

## 2.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표3>은 그룹홈 청소년의 남녀 집단 간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친구의 지지, 그룹홈 가족의 지지, 학교 교사의 지지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 친구의 지지 정도는 여자가 평균 30.6(S.D.=7.5), 남자가 평균 29.8(S.D.=6.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룹홈 가족의 지지 정도는 여자가 평균 27.8(S.D.=7.0), 남자가 평균 29.2(S.D.=6.4)로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 교사의 지지 정도는 여자가 평균 16.8(S.D.=5.0), 남자가 평균 18.2(S.D.=3.9)로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여자가 평균 27.1(S.D.=4.5), 남자가 평균 28.2(S.D.=4.5)로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그룹홈 청소년의 남녀별 집단 간 차이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학교 교사의 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35$ ,  $df=218.54$ ,  $p<.05$ ). 그룹홈 청소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 교사의 지지에 대해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기원(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 청소년의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정기원(2006)의 일반 청소년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3>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구분		t	Mean (S.D.)		Min, Max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95	여자	30.6(7.5)	76.3 (13.8) 28, 105
	남자		29.8(6.4)		
	그룹홈가족 지지	-1.58	여자	27.8(7.0)	
	남자		29.2(6.4)		
학교교사 지지	-2.35*	여자	16.8(5.0)		
남자		18.2(3.9)			
자아 존중감	여자	-1.84	27.1(4.5)	27.6(4.5)	15, 38
남자	28.2(4.5)				

\* :  $p<.05$

### 3.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표4〉는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것이다. Pearson 상관계수가 최고로 높은 것이 친구 지지와 그룹홈 가족 지지로 .448이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계수가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최현철, 2007: 237).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계수 중 가장 높은 것이 .5를 넘지 않으므로 각 변인들은 서로 다중공선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인들을 회귀식에 투입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4〉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1. 나이	1				
2. 성적	.059	1			
3. 그룹홈 거주기간	.156*	.040	1		
4. 친구지지	.003	.212**	.154*	1	
5. 그룹홈 가족 지지	-.124	.107	.138*	.448***	1
6. 학교 교사 지지	-.113	.182**	.053	.243***	.302***
					1

\* : p<.05      \*\* : p<.01      \*\*\* : p<.001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 〈표5〉, 〈표6〉, 〈표7〉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5〉는 사회적 지지 각 하위 요인이 개별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표6〉은 사회적 지지 각 하위 요인이 개별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표7〉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을 전부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통제변인만 투입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전체를 투입하였을 경우를 순차적으로

보는 것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해당한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연구자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의 순서를 정하여 준다. 실험적 모델에서 변인들 간의 상대적 기여도와 예측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양병화, 2007: 77).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변인 중 성적은 그룹홈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모두 그룹홈 남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만 투입했을 경우와 설명력을 비교했을 때, 친구의 지지 요인을 투입했을 경우 설명력은 20% 증가하였고,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을 투입했을 경우 설명력은 4% 증가하였고, 교사 지지 요인을 투입했을 경우 설명력은 7% 증가하였다.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 학교 교사의 지지 요인에 비하여 친구의 지지 요인의 설명력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룹홈 남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요인들이 전부 고려해야 하지만 특별히 친구 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통제변인	나이	-.06	-.08	-.03	-.07
	성적	1.15**	.76*	.93*	.98*
	거주기간	.01	.01	.01	.01
독립변인	친구 지지		.34***		
	그룹홈 가족 지지			.18*	
	교사 지지				.27*
F		3.36*	10.35***	3.83**	4.54**
R2		.09	.29	.13	.16
모델1 대비 R2 변화량		-	.20	.04	.07

\*: p<.05    \*\*: p<.01    \*\*\*: p<.001

〈표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변인 중 성적은 여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중 친구의 지지 요인과 그룹홈 가족의 지지는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학교 교사의 지지는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만 투입했을 경우와 설명력을 비교하면 친구의 지지 요인과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을 각각 투입했을 경우 설명력은 각각 15%씩 증가하였다. 이는 그룹홈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친구의 지지와 함께 사는 그룹홈 가족의 지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사 지지 요인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위험하다. 김연희, 박경자(2001)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역시 낮을 수 있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표6〉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통제변인	나이	-.29	-.19	-.11	-.23
	성적	1.80***	1.47***	1.67***	1.61***
	거주기간	.01	.00	.00	.01
독립변인	친구 지지		.25***		
	그룹홈 가족 지지			.27***	
	교사 지지				.23
F		9.21***	14.86***	14.87***	9.35***
R2		.21	.36	.36	.26
모델1 대비 R2 변화량		-	.15	.15	.05

\*: p<.05    \*\*: p<.01    \*\*\*: p<.001

〈표7〉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들을 전부 투입했을 경우이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분석의 신중함을 위하여 Durbin-Watson의 임계치를 보았는데, 모두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잔여분산 값의 역수로 구해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은 대부분 1.0 근방에 있어 역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sup>3)</sup>

먼저 남자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친구 지지 요인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 성적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중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과 교사의 지지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5〉에서 보듯이 설명력이 작았던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과 학교 교사의 지지 요인이 설명력이 큰 친구의 지지 요인과 모두 함께 투입됨으로 설명력이 잠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룹홈 남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의 지지 요인이 여전히 제일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그룹홈 가족 지지가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정을 짓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가족의 지지가 덜 지각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Windle(1992)은 가족의 지지가 남자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의 완화효과가 덜하지만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강력한 예측 인자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김애경(2003)은 남자 아동 보다는 여자 아동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체로 일과 성취지향적인 욕구가 강한 남자 청소년들에 있어 가족 지지는 때때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지를 인지하는 정도가 낮더라도 이는 가족의 지지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룹홈 가족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지지 체계가 그룹홈 가족 지지 체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특징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자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통제변인의 성적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친구의 지지, 그룹홈 가족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3) Durbin-Watson의 d임계치는 0과 4에 가까우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2에 가까우면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 VIF값은 1에 가까울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양병화, 2007: 67-68)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성적 .32, 친구 지지 요인 .28, 그룹홈 가족 지지 요인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준화 회귀계수나 회귀식의 설명력의 변화를 볼 때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원(2006)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는 그룹홈 청소년들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기원의 연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이 남자와 여자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남자는 주로 친구 지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자는 성적, 친구 지지, 그룹홈 가족 지지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표7>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

변인		남자		여자	
		B	$\beta$	B	$\beta$
통제 변인	나이	-.14	-.07	-.07	-.04
	성적	.72	.18	1.35***	.32
	거주기간	.01	.07	-.00	-.02
독립 변인	친구 지지	.29***	.41	.17**	.28
	그룹홈 가족 지지	-.01	-.01	.16**	.25
	교사 지지	.09	.08	.14	.15
F		6.06***		13.38***	
Durbin-Watson		1.69		2.12	
VIF		1.03~1.49		1.09~1.45	
R2		.28		.44	

\*: p<.05    \*\*: p<.01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55개의 그룹홈 231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그룹홈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학교 교사의 지지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남자와 여자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친구의 지지 요인이 일관되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인만 볼 때 친구의 지지 요인은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청소년은 주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사회적, 정서적 욕구가 충족하게 되며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장미경(2004, 10)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남자 청소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자 청소년에게서 학교 교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사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룹홈 여자 청소년이 학교 교사 지지를 낮게 인식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지지 하위 요인을 각각 투입했을 때는 설명력이 있으나 사회적 지지 하위 요인 전부를 투입했을 때는 그룹홈 가족의 지지와 학교 교사의 지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설명력이 낮았던 부분이 함께 투입된 변인에 의하여 설명력이 잠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그룹홈 가족 지지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의 성취지행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그룹홈 가족의 지지 요인이 설명력이 잠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여자 그룹홈 청소년에 있어서 통제변인 중 성적은 투입된 변인들 중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을 따로 투입했을 때는 성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을 전부 투입했을 때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설명력이 높지 않았던 성적 요인이 다른 요인의 투입으로 인하여 설명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그룹홈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룹홈 청소년을 관리대상으로 여겨 통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그룹홈을 운영하여야 하며,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별성을 인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여자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친구 지지뿐 아니라 그룹홈 가족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그룹홈 구성원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룹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적이 투입된 변인 중 가장 크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학습 도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그룹홈 현실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별적인 접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셋째, 학교 교사의 지지 요인은 영향이 작거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다고 하여 학교 교사의 지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룹홈 청소년에게는 그룹홈 생활 교사, 학교 교사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지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그룹홈 아동이 스스로의 성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 이하에 속한다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에서 낮은 성적으로 인하여 교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교사 지지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학교 교사는 그룹홈 청소년들을 대할 때 성적보다는 항상 지지하고 있음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넷째, 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로 그룹홈을 더욱 가정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그룹홈은 한 명의 대표와 한 명의 종사자가 있는 게 대부분이며, 청소년은 7명 내외로 있다. 두 사람이 7명 내외의 청소년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박한 임금과 거의 24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소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룹홈에 대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현재 그룹홈협의회에서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그룹홈역량강화사업<sup>4)</sup>과 같은 사업이 보완을 거쳐 상설화된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그룹홈 내부 요인으로만 독립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룹홈이 정말 가정 같은 모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다 정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룹홈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더 확고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룹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룹홈 가족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심층면접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실천적이고 정책적이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 경기 지역의 그룹홈 청소년에게 한정된 연구임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도 밝히는 바이다.

---

4) 그룹홈협의회에서는 2009. 1~12월까지 본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 92개 그룹홈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순회교사 대체교사를 파견받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받는 교육이 있다. 대체인력은 연 40회(월 별 32시간 기준), 순회교사는 연 30회(월 별 3회 기준)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순회교사나 대체교사가 파견된 동안 대표와 종사자는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강기정·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1호, pp. 171-187.
- 강석기(2003). 청소년의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155-180.
- 권순용(2008). 중고교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의 인과적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6권 제2호, pp. 93-118.
- 그룹홈협의회(2008). 아동 청소년 그룹홈 실태조사 연구. (미간행자료집)
- 김미성(2001). 시설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2001).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117-137.
- 김수진·이정숙·양미화(2004).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73-83.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351-372.
- 김연희·박경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2권 제2호, pp. 49-64.
- 김형태·조순실(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3호, pp. 259-286.
- 박유진(2005).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지지가 커뮤니티의 몰입과 동일시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13-25.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청소년백서.
-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연구지원팀·서울대학교실천사회복지연구회 Praxis(2004).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집.

- 양병화(2007).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연문희(1989).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창학사.
- 이선혜(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2000).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와 역할*. (아동·청소년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임연진·나유미(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2호, pp. 61-69.
- 장미경(2004). *청소년의 사회망 지향 : 사회지지과정과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1호, pp. 3-14
- 장선철·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pp. 115-133
- 장인협·오정수(2002).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기원(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165-190.
- 조성연(2004).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 행동과 형제자매 관계 및 사회적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3호, pp. 381-391.
- 조유진·김광웅(2002). *암환아와 일반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pp. 73-89.
- 주영신·양승남(2005). *인지-행동프로그램이 보호관찰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pp. 153-176.
- 최영(2007).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아동복지학*, 제24호, pp. 61-90.
- 최현철(2007). *사회통계방법론*. 과주: 나남.
- 홍성애(1998). *가족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Furukawa, T. A., F. Hari, T. Hari, T. Kitamura and K. Takahashi(1999).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among psychiatric patients with various diagnoses and normal control.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34 No. 4, pp. 216-222.
- Goodwin, R., P. Costa and J. Adonu(2004). Social support and its consequences: Positive' and deficiency' value and their implications for support and self-esteem.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4 No. 3, pp. 465-474.
- Jeong, W. S.(1968). *Guideline for self-concept test*, Korean Testing Center, Seoul.
- Kim, Y. H.(1995).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based on logotherapy on the level of the purpose in life, the self-esteem and the decreasing of the stress of unmarried females in their twenties*, Dong-A University, Pusan.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HJ: Penguin books.
- Ross, C. E. and J. Mirowsky(1989). Explaining the social patterns of depression: Control and problem solving or support and ta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0 No. 4, pp. 206-219.
- Turner, J. R. and S. Noh(1988).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9 No. 1, pp. 23-37.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3, pp. 522-530.
- Zimet, G. D.,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 Vol. 52 No. 1, pp. 30-41.

## ABSTRACT

### Factors of Social Support that Affect the Self-Esteem of Group Home Adolescents

Jeon, Jun-Hyeon\* · Yi, Soo-Cheon\*\*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support factors which affect the self-esteem of a group of some 231 group home adolescents, aged between 11 to 20 years ol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from 55 group hom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support of male adolescents from school teacher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adolescents. Second, the support received from friends tended to affect the self-esteem of both male and female subjects, provided that socio-demographic variables like gender, school grade and residential period at the group home were controlled. Third, the social support from group home family also tended to affect the self-esteem of female adolesc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focus attention on ways of helping both male and female group home adolescents in order to better promote peer relationship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ly differentiated programs for both male and female group home environments.

**Key Words** : social support, self-esteem, group home, adolescent

투고일 : 6월 12일, 심사일 : 9월 21일, 심사완료일 : 11월 16일

---

\*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 Seoul Christian University